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유금필

金 甲 童\*

1. 머 리 말
2. 평산 세력과 유금필
3. 유금필의 활약
4. 유금필에 대한 대우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 말기의 혼란으로 말미암은 후삼국으로의 분열 속에서 세력을 키워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그가 궁예의 뒤를 이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결코 그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지방 호족은 물론 그 휘하에 있던 많은 무장들과 문신들의 협력 덕분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개국에 공이 많은 사람들은 개국 공신에 책봉하였으며 후삼국 통일에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들을 삼한공신으로 책봉하였다. 또 태조 왕건 사후 태조를 많이 도와 준 사람들은 배향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지금까지 고려 태조 휘하에 있던 사람들, 특히 무장들에 대해서는 후백제와의 전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sup>1)</sup> 그러나 각 전투에서 행한 장수들의 개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검토한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고려의 개국 공신이라든가 삼한공신, 태조의 배향공신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도 많지 않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 태조의 배향공신 중의 하나인 유금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는 각종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불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유금필의 업적과 활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먼저 왕건의 등극 이전 유금필의 성장과 등장 배경을 알아보고 왕건 즉위 이후 그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유금필에 대한 대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이 논문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능했던 한 요소를 탐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평산 세력과 유금필

기록에 의하면 그는 平州人으로 되어 있다.<sup>3)</sup> 평주는 원래 고구려의 大谷郡인데 신라 경덕왕 때 永豐郡이 되었다가 고려 초에 평주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곳이다.<sup>4)</sup> 현재의 황해도 평산군을 가리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1) 유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05.

2) 개국공신 복지검에 대한 연구로는 김갑동, 「나말려초의 면천과 복지검」,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한국중세사학회, 2001이 있다.

3) 『고려사』 권92, 유금필전.

4) 『고려사』 권58, 지리지3 황주목 평주조.

』에도 평산의 토성 중에 庾氏가 제6위로 나오고 있고 이 지역 출신의 인물로 유금필이 언급되고 있어<sup>5)</sup> 그가 평산 지역 출신임은 확실하다 하겠다. 즉 그는 平山 庾氏의 시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부터 거기에 살았던 것일까. 원래부터 토착해 있던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일까.

그의 등장은 패강진의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패강진은 통일 신라기 북방영토의 개척과 발해의 등장으로 인한 위협 등의 요인으로 설치되었다. 선덕왕 3년(782) 패강진에 頭上大監·大監·頭上弟監·弟監·步監·少監 등의 관직을 둠으로써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sup>6)</sup> 그런데 대감·제감·소감은 모두 신라시대 무관의 관직명이었다. 이들은 停·幢·州摺 등의 군단에 배치되어 있었다. 頭上도 무관직으로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총 192인의 法幢頭上이 존재하고 있었다.<sup>7)</sup>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패강진 지역은 군사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패강진은 현 황해도 평산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sup>8)</sup> 그러나 패강진이 관할하는 지역은 평산만이 아니었다. 그 일대의 14군현이었다. 경덕왕대부터 현덕왕대까지 설치된 14군현이 바로 패강진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이다.<sup>9)</sup> 이 패강진 지역에는 원래 사람이 많지 않아 선덕왕 3년(782) 2월 왕이 한산주를 순행하면서 민호를 패강진으로 옮겼다.<sup>10)</sup> 남방의 민호를 사민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도호부 토성 및 인물조.

6)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하 외관 溟江鎮典조.

7)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하 무관조.

8) 이기백, 『고려대조사의 鎭』, 『고려병제사 연구』, 일지사, 1968, 231쪽; 이기동, 「신라 하대의 패강진」,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한국연구원, 1880, 217쪽. 그러나 패강진의 본영이 황해도 봉산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배종도, 「신라 하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학림』 11, 31쪽 및 이인철, 『신라정치제도사 연구』, 일지사, 1993, 224-225쪽), 평양에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조이옥, 『통일신라의 북방진출 연구』, 서경문화사, 2001, 211-214쪽).

9)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경덕왕 7년 8월조 및 『삼국사기』 권35, 지리지2 漢州조.

10)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선덕왕 3년 2월조.

시켜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강제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패강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발적인 이주도 있었다. 그 예는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A-1. 그 선조는 北京都尉 赤烏인데 신라로부터 竹州에 들어가 察山侯가 되었다. 또 平州에 들어가 十谷城 등 13성을 설치하였다. 궁예에게 귀부하였는데 그 후 자손이 번창하였다. 우리 태조가 통합한 이래로 지금까지 후손이 끊이지 않았다(『조선금석총람』 朴景仁墓誌).

2. 박씨의 선조는 鷄林人임으로 대개 신라의 시조 혁거세의 후예이다. 신라 말에 그 후손 察山侯 積古의 아들 直胤 大毛達이 平州에 사거하여 八心戶를 관장함으로써 邑長이 되었다. 그런 고로 직윤 이하로부터 평주인이 되었다. 직윤의 아들은 삼한공신 遲胤이고 지윤의 아들은 삼한공신 太尉兼侍中 守卿이다. 수경의 아들은 삼한공신 司徒 承位이고 공은 승위의 4대손이다(『한국금석문추보』 朴景山墓誌).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박경인이나 박경산의 선조는 박혁거세의 후손인데 박적오가 죽주(竹山)에 옮겨와 살면서 찰산후가 되었다. 신라 말까지 거기에 살면서 찰산후로 있었으나 적고의 아들 직윤이 평주(平山)에 이사하여 읍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궁예를 섬기게 되었고 궁예정권이 붕괴되자 태조 왕건을 섬겨 박수경을 비롯한 그 후손이 번창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죽산 박씨와 평산 박씨는 그 근원이 같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 말기에는 통치 체제의 이완과 더불어 인구의 지역 이동이 극심했던 것이다. 眞澈大師 利嚴도 원래는 신라 왕족 김씨였으나 신라 말기에 공주(熊川)로 옮겨와 살았으며<sup>11)</sup> 大鏡大師의 선조도 경주에서 藍浦로 이사하여 살았던 것이다.<sup>12)</sup>

11) 『조선금석총람』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

12) 『조선금석총람』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이렇게 볼 때 유금필의 선조도 원래는 남방 출신이었으나 패강진 지역의 설치와 더불어 북방으로 옮겨와 살았다고 추정된다. 즉 본래 살던 지역은 무송현(茂松縣: 현 전북 고창군 무장면)이었는데 패강진이 설치되면서 사민정책의 일환으로 평산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이 아닌가 한다. 때문에 족보에서는 평산 유씨와 무송 유씨를 같은 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유금필의 증손 중 유장신 계열은 중앙에서 현달하였지만 유공의는 아첨죄를 범하여 檢校蔣作少監에 머무른 바 있다. 그 때문에 유공의의 아들 유록승은 벼슬하지 못하고 원래의 고향인 무송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한다. 족보에 유록승대에 이르러 무송에 이봉받은 것을 계기로 그곳에 본관을 정하였다는 설명은 그 같은 상황을 뒷받침해준다 하겠다.<sup>13)</sup>

위 사료의 죽산 박씨 및 평산 박씨의 예와 같다 하겠다. 즉 A-2에 나오는 박수경은 『고려사』에 ‘평주인이다’라고 나오고 있지만<sup>14)</sup> A-1에 보이는 박경인의 아버지 박인량은 ‘죽주인 혹은 평주인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sup>15)</sup> 이는 박수경의 손자 때부터 토착적 기반이 평산에서 이탈하여在京仕宦하다가 나중에 전 본관인 죽산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sup>16)</sup>

그렇다면 유금필은 어떻게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신라 말기 후삼국기에 이 지역은 궁예에게 접수되었다.<sup>17)</sup> 다음 기록을 보자.

B-1. 溟江道の 10여 州縣이 궁예에게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효공왕 8년조).

13) 그러나 무송 유씨와 평산 유씨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성씨라는 견해도 있다(이수건,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984, 160쪽 및 박용운, 『고려시대 무송 유씨 세력 분석』, 『고려사회와 문벌귀족세력』, 경인문화사, 2003, 350쪽).

14) 『고려사』 권92, 朴守卿傳.

15) 『고려사』 권95, 朴寅亮傳.

16) 이수건, 『한국중세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984, 156-157쪽.

17) 당시 궁예의 세력 확대와 영역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해안, 2007, 56-86쪽 참조.

2. 溟西 13鎮을 分定하였다(『삼국사기』 권50, 궁예전 天祐 2년조).

궁예가 철원을 접수하고 왕건 부자도 귀순해오자 효공왕 8년(904) 패강도 10여 주현이 투항해 왔다. 이에 궁예는 이듬해에 패서 13진을 나누어 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패서 13진은 A-1, 2의 사료로 볼 때 박지윤이 거느리고 있던 13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sup>18)</sup> 그 때문에 그는 삼한공신이 된 것이다. 이는 패강진의 14군현 중 松峴縣이 唐岳縣에서 개명된 中和縣의 속현이 되어 행정구역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sup>19)</sup> 이런 과정에서 유금필도 자연스럽게 궁예 정권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유금필이 중앙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배경에는 평산 박씨 세력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박지윤의 아들이며 박수경의 형인 朴守文은 태조가 죽을 때 염상·왕규 등과 함께 태조의 곁에서 유언을 들은 宰臣 중의 하나였다.<sup>20)</sup> 박수경은 성격이 용감하고 지혜가 있어 여러 번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신라를 침공하는 후백제를 여러 번 물리쳤으며 조물군 전투에 下軍의 장군으로 참여하여 상군과 중군을 제치고 홀로 승전함으로써 태조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勃城 전투에서는 포위를 풀고 태조를 구출하기도 하고 조물군 전투에서 활약하기도 하였다.<sup>21)</sup> 조물군 전투에서는 유금필의 공도 컸는데 두 사람은 다른 시기에 전투에 참가한 것 같다. 즉 박수경이 활약한 전투는 924년 견훤의 아들 須彌強이 조물성을 공격할 때의 일이고<sup>22)</sup> 유금필이 활약한 전투는 925년 왕건과 견훤이 화친할 때의 상황으로 생각된다.<sup>23)</sup> 박수경은 후백제 신검과의 일리천 전투에도

18) 그러나 조인성은 평산 박씨 세력이 궁예에게 귀부한 것은 궁예의 철원 도읍을 전후한 895년 내지 896년경이라 추측하고 있다(『태봉의 궁예 정권』, 푸른 역사, 2007, 79쪽).

19) 김갑동,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97쪽.

20) 『고려사』 권2, 태조세가 26년 5월조.

21) 『고려사』 권92, 朴守卿傳.

22) 『삼국사기』 권50, 견훤전 同光 2년조.

유금필과 같이 참전하고 있다. 즉 우강의 장군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갈등을 빚거나 다툼을 한 흔적이 없는 것을 보면 협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같은 본관을 가진 또 다른 성씨인 평산 신씨와는 큰 연관관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산 신씨의 시조인 신승겸은 원래 평산 출신이 아니고 전라도 곡성 출신이었다. 따라서 그는 죽은 후에도 곡성의 성황신이 되었다.<sup>25)</sup> 때문에 열전에는 그가 光海州(현재의 춘천) 사람인 것처럼 나와 있으나<sup>26)</sup>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곡성인이었다고 나와 있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중앙에 올라왔다가 후에 몇 년간 춘천에 살았다. 그리하여 기록에는 그가 춘천에서 “寓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묘도 거기에 있다.<sup>28)</sup> 평산에 본관을 정한 것은 태조 왕건이 지정한 기러기를 쏘아 맞혔으므로 태조가 감탄하여 그곳을 貫鄉으로 하고 그 인근의 땅 3백 結을 준 것에 기인한다.<sup>29)</sup> 이것이 언제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조가 왕위에 즉위한 이후의 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신승겸의 관향은 평산이 되었고 후손들은 거기에 살았을 것이나 본인은 평산에 오래 살지 않았다. 따라서 본래부터 평산에 살았던 박수경 세력이나 유금필 세력과는 큰 연고가 없었던 것이다.

23)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10월조.

24) 『고려사』 권2, 태조세가 19년 9월조.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 전라도 곡성현 인물조.

26) 『고려사』 권92, 홍유 附 신승겸전.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도호부 인물조.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춘천도호부 인물조.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도호부 인물조.

### 3. 유금필의 활약

유금필의 활약상이 처음 보이는 것은 왕건의 즉위 직후이다. 즉 청주의 동향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료를 보자.

C-1. 태조가 즉위하자 조서를 내려 그 추대한 공로자들을 표창하되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을 모두 1등으로 하고 금은제 그릇, 비단 옷과 비단, 이부자리, 비단천 등을 주었다. 태조는 靑州가 배반할 것을 우려하고 홍유와 유금필에게 군대 1,500명을 인솔시켜 鎭州에 주둔하여 반란을 방지하게 하였으므로 청주는 배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으로 그를 大相으로 승진시켰다. 그가 죽으니 시호를 忠烈이라고 하였다(『고려사』 권92, 홍유전).

2. 堅金은 靑州 사람이다. 이 고을의 領軍將軍으로 있었는데 태조가 즉위한 후 ‘청주 사람들은 변심하는 일이 많으니 제때에 방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생길 것이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그 고을 사람 能達, 文植, 明吉 등을 보내 엿보게 하였더니 능달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은 다른 뜻이 없으니 죽히 믿을 만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오직 문식과 명길은 은밀히 고을 사람 金勤謙과 寬駿에게 말하기를 “능달은 비록 그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앞으로 헛곡식이 익으면 변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다.

견금이 副將 連翬, 興鉉과 함께 와서 예방하니 태조는 이들에게 각각 말과 비단을 차등 있게 주었다. 견금이 태조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며 두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고을 사람인 勤謙, 寬駿, 金言規 등 서울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이 몇몇 사람만 없애버리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데 있다. 비록 죄 있는 자라도 오히려 용서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

기 역량을 국가 보위에 바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 고을을 얻자고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죽이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견금 등이 부끄럽고 송구하여 물러갔다.

근검, 언규 등이 이 말을 듣고 아뢰기를 "전일에 능달이 복명하기를 탄 마음이 없다고 하며 저희들도 꼭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견금 등의 말을 듣건대 탄 마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들을 체류시키면서 변화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태조도 그 의견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견금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은 비록 그대의 말대로 하지 않으나 나는 그대들의 충성을 깊이 가상히 여기고 있다. 그대들은 일찍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 견금 등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충직한 마음을 피력하고자 이해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도리어 무고하고 참소한 것처럼 되었으나 이것을 죄로 삼지 않으시니 은혜가 막대합니다. 일편단심, 보국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뜻을 품고 있으니 만약 난리가 난다면 제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컨대 관군을 파견하여 성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태조는 이 말을 옳게 여기고 마군 장군 홍유, 유금필 등을 파견하여 병사 1천 5백 명을 인솔하고 鎭州를 지킴으로써 이를 방어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道安郡에서 아뢰기를 "청주가 비밀히 백제와 내통하니 장차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였다. 태조는 또 마군 장군 능식을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鎭撫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였다(『고려사』 권92, 王順式 附 堅金傳).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금필은 태조 왕건의 즉위 직후 청주의 배반을 막기 위해 개국 1등 공신 홍유와 같이 진주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태조 원년 6월의 일이었다.<sup>30)</sup> C-2는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전하고 있다.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청주의 반란을 염려하여 능달·문식·명길 등을 파견하여 청주의 동태를 살피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능달과 문식

30)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월.

·명길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에 청주의 영군장군이었던 견금이 올라와 능달의 말처럼 청주에서는 별 일이 없을 것이라 보고하였다. 수도에 있던 청주 출신 근검·관준·김언규 등이 견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여 견금 일행을 억류하게 되었다. 견금 일행은 결국 용서를 받고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태조는 홍유와 유금필을 진주에 보내 청주를 감시하면서 반란을 억제케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청주가 후백제와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급보가 들어오자 다시 마군장군 능식을 파견하여 이를 방지케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의 반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청주 세력은 두 차례에 걸친 반란을 일으켰다. 한번은 중앙에 있던 徇軍吏 林春吉이 일으킨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청주 본토에서 陳宣·宣長 등이 일으킨 반란이었다.<sup>31)</sup> 이 같은 반란의 원인은 904년 청주인 호 1천의 사민에 말미암은 것이었다.<sup>32)</sup> 그러나 홍유와 유금필의 활약으로 초기 반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유금필의 직책은 마군장군이었다. 마군은 말탄 기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병보다는 훨씬 정예병이었다. 이로 미루어 유금필은 태조 즉위 당시 궁에 밑에 있던 휘하 장수였다고 하겠다. 태조를 추대하는 데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태조에게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 때문에 태조의 즉위 직후 마군장군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에게 군사를 주어 진주라는 지방에까지 파견한 것을 보면 태조에게 신임받는 인물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마군장군으로 나오는 인물로는 홍유·유금필·능식 등이 찾아진다. 홍유는 개국 1등 공신으로 의성 출신이었다. 태조 2년에는 烏山城을 禮山縣으로 개칭하고 大相 哀宣과 같이 여기에 파견되어 유민 500여 호를 모아들인 인물이었다.<sup>33)</sup> 이들과 같이 태조를 위

31) 『고려사』 권1, 태조세가 원년 9월 乙酉 및 10월 辛酉조.

32) 김갑동, 「청주세력」,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41-43쪽.

33) 『고려사』 권92, 홍유전.

하여 전심을 바쳐 군사적인 활약을 하였던 것이다.

그가 다시 한번 큰 활약을 하는 것은 태조 3년이였다. 다음 기록을 보자.

D-1. 태조 3년 3월에 북계 골암성이 자주 北狄의 침략을 받으므로 庾黔弼에게 명령하여 開定軍 3천 명을 거느리고 골암성에 가서 동산에 큰 성을 쌓고 주계케 하니 이로 인하여 북방이 평안하게 되었다(『고려사』 권82, 병지2 鎭戍조).

2. 北界의 鵞岩鎭에 자주 北狄이 침략하자 태조가 諸將을 모아 의논하기를, “지금 南兗(甄萱을 말함)이 아직 멀하지 않았는데 北狄이 가히 근심스러우니 짐이 지나 깨나 근심스럽고 두렵다. 庾黔弼을 보내어 진압코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모두 좋다하여 이에 명하였다. 유금필이 그 날로 開定軍 3천을 거느리고 출발하여 鵞岩에 이르러 동쪽 산에 큰 성을 쌓고 거처하며 北蕃의 酋長 300여 인을 불러 모아 酒食을 성대하게 베풀어 향응하였다. 그 취한 기회를 타서 위엄으로 협박하여 추장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드디어 諸部에 使人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미 너희 추장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와서 항복하라”라고 하니 이에 諸部가 서로 거느리고 와 附庸하는 자가 1,500인이었다. 또 포로된 자 3,000여 인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여 북방(北方)이 편안하게 되니 태조가 특히 褒獎을 가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계 지역의 골암성이 북계의 침입을 자주 당하자 유금필이 출동하여 이들을 평정하고 성을 쌓고 돌아왔던 것이다. 골암성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북계’라는 표현으로 보아 북쪽 변경 지역임은 틀림없다. 당시 이 지역에 있던 족속은 대개 말갈족이었으므로 ‘北狄’ 또는 ‘北蕃’은 곧 말갈족(여진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생각한다.<sup>34)</sup>

34) 김광수도 당시 『고려사』 기록에 蕃人으로 지칭되는 이민족은 종족 계통상 말갈족이라 하였다(김광수, 『고려 건국기의 패서호족과 대여진관계』, 『사총』 21·22합집, 143쪽).

유금필은 이들을 복속시키는데 무력이 아닌 기지를 발휘하였다. 이들 추장들을 불러 술잔치를 벌여주고 취한 틈을 타 위엄으로 굴복시켰다. 그 결과 1,500여 명이나 되는 여진족이 귀순해왔고 그들이 잡아왔던 고려의 백성 3,000여 명을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쉽게 여진인들을 굴복시킨 것은 그의 뛰어난 지략 덕분이기도 했지만 여진 사정에 밝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궁예에게 귀순한 平壤城主 黔弼의 일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35)</sup> 즉 유금필의 원래 이름은 黔弼인데 뒤에 성을 하사받아 유금필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에 그는 평양 내지 평산 일대의 지리적 사정에 밝아 효과적인 대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에 귀속된 여진족들은 유금필 휘하에 들어가 각종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기동력을 갖춘 騎兵이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태조 8년(925) 그의 활약을 보자.

E-1. 征西大將軍 庾黔弼을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을해일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曹物郡에서 견훤과 교전하였는데 유금필이 자기 군사를 끌고 와서 응원하였다. 견훤이 겁이 나서 화친하기를 청하고 사위 眞虎를 인질로 보내왔으므로 왕도 자기의 사촌 동생인 원운 王信을 인질로 보냈다. 왕은 견훤의 나이가 자기보다 10년 위라 하여 그를 尙父라고 불렀다.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은 이랬다저랬다 헐잡이 많아 화친할 사람이 못된다”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그릴 듯이 여겼다(『고려사』 권1, 태조세가 8년 10월조).

2. 8년에 征西大將軍으로 임명되어 백제 燕山鎭을 공격하여 장군 吉煥을 죽였으며 또 任存郡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살상 포로하였다. 태조가 견훤과 曹物郡에서 전투할 때 견훤의 군대가 매우 정예로워서 좀처럼 승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지구전으로 적군의 피로를

35) 김광수, 『고려건국기의 패서호족과 대여진관계』, 『사총』 21·22합집, 1977, 145쪽.

기다리려고 하였는데 유금필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함쳤으므로 군대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견훤이 겁이 나서 화친을 청하니 태조가 그것을 허락하고 견훤을 병영으로 불러다가 일을 의논하려고 하니 유금필이 간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알기 어려운데 어찌 경솔히 적과 접근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태조는 그만 두었다. 인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燕山과 任存을 격파한 전공이 적지 않으니 국가가 안정될 때를 기다려 응당 그대의 공을 표창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 92, 유금필전).

태조 8년의 활약은 두 전투에서 빛났다. 하나는 백제 연산진을 공격하여 장군 길환을 죽인 것과 임존군을 공격하여 3천여 명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한 전투였다. 이 두 전투가 E-1에서는 단순히 “백제를 공격하였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연산진과 임존군이 당시 후백제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진은 본래 백제의 一牟山郡이었다가 통일 신라 때 燕山郡으로 개칭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문의현이 된 지역이다.<sup>36)</sup> 지금의 충북 문의면이다. 당시에는 국경의 요지로 군대가 설치되어 진이라 불리웠던 것 같다. 고려의 군대가 주둔한 지역은 진이라 불리웠기 때문이다. 禮山鎮이나 禮安鎮, 眠於鎮 등이 그것이다.<sup>37)</sup>

임존군은 본래 백제의 임존성이었다가 통일신라때 任城郡이 되었고 조선 시대에 와서 大興縣이 된 지역이다.<sup>38)</sup> 지금의 예산군 대흥면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임존성이 있어 백제 멸망기에 福信, 遲受信, 黑齒常之 등이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거점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요지를 후백제가 점령하였던 바 이때에 이르러 유금필이 빼앗아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유금필의 활약으로 고려와 후백제의 경계 지점에 있던 두 거점 지역을 왕건의

3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문의현 건치연혁조.

37) 이기백, 「고려태조시의 鎭」, 『고려병제사 연구』, 일지사, 1968, 232-235쪽.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충청도 대흥현 건치연혁조 및 김갑동, 「백제 이후의 예산과 임존성」, 『백제문화』 28, 1999 참조.

영토로 편입하였던 것이다.

왕건도 이때의 전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은 태조 11년(928) 견훤에게 보낸 조서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러 예를 들면서 연산군과 임존성의 전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연산군 들판에서는 길환을 軍前에서 목베었으며 … 임존성을 빼앗던 날에는 邢積 등 수백 명의 몸뚱이가 없어졌다”<sup>39)</sup>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물군<sup>40)</sup> 전투에서 처음의 열세를 극복하고 견훤의 화친 요청을 이끌어 내었다.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물군에서 대치한 왕건과 견훤이 쉽사리 승부를 결정짓지 못할 때 유금필이 군사를 이끌고 합세함으로써 인질 교환과 함께 견훤과의 화친이 성립되었다. 왕건이 견훤을 직접 군영으로 초청하려 하자 이를 말리기도 했다. 태조 왕건은 연산군과 임존성을 격파한 공로를 인정하며 후일 포상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활약은 태조 11년(928) 청주 전투에서도 발휘되었다. 다음 기록을 보자.

F-1. (태조 11년) 庾黔弼에게 명령하여 湯井郡에 성을 쌓게 하였다(『고려사』 권82, 병지2 城堡조).

2. 11년에 왕의 명령으로 湯井郡에 성을 쌓았다. 당시 백제의 장군 金萱, 哀式, 漢丈 등이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靑州를 침범하였다. 하루는 유금필이 탕정군 南山에 올라가 앉아서 즐기고 있었는데 꿈에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일 西原에 반드시 변고가 있을 터이니 빨리 가라”고 하였다. 유금필은 놀라 깬 후 그 길로 청주로

39)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1년 정월조.

40) 조물군 내지 조물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경북 선산의 金鳥山城설(池內宏, 『고려 태조의 경략』, 『만선사연구(중세)』 2, 1937; 유영철, 『고려의 후삼국통일 연구』, 경인문화사, 2005, 78쪽), 안동 인근설(김상기, 『고려시대사』, 동국문화사, 1961, 29쪽), 金泉 助馬面설(이병도, 『한국사(중세)』, 을유문화사, 1961, 42쪽) 등이 있다. 이 중 금오산성설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가서 적군과 싸워 격파하고 禿岐鎭까지 추격하였는데 살상 및 포로로 잡은 자가 3백여 명이였다. 中原府에 달려가서 태조를 보고 전투 정황을 자세히 보고하였더니 태조가 말하기를 “동수 싸움에서 신승겸과 김락 두 명장이 전사하였으므로 국가를 위하여 깊이 근심하였더니 지금 그대의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이 저으기 안심되었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태조 11년은 그 전해에 있었던 후백제 견훤과의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대패하여 신승겸, 김락 등의 장수를 잃고 자신은 겨우 몸을 빠져나온 치욕이 있었던 다음 해이다. 왕건은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처음 취한 조치가 탕정군에 성을 쌓는 일이었다. 탕정군은 본래 삼국시대 백제 영역이었는데 고려 초기에는 濫水郡이라 불리운 지역이다.<sup>41)</sup> 지금의 충남 아산시 탕정면이다. 당시 이 지역은 후백제와의 국경 지대로 여기에 성을 쌓아 다음의 전투에 대비하였다. 이때 왕건은 유금필과 같이 직접 탕정군에 가 지형지세를 살피고 성을 쌓게 하였던 것 같다. 그가 직접 탕정군에 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42)</sup> 아마 이때 쌓은 성이 排方山城이 아닌가 한다. 배방산에 있던 이 산성은 둘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3천 313척, 높이는 134척,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우물과 軍倉이 있었다.<sup>43)</sup>

그 해 7월 왕건은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을 개시하였다. 충북 보은에 있던 삼년산성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청주로 가서 주둔하였다. 얼마 후 8월에는 충주로 이동하여 머물렀다.<sup>44)</sup> 아마 이 틈을 타 견훤군이 청주를 공격하였던 모양이다. 그러자 유금필이 군사를 휘몰아 청주에 출동하여 위기에 빠졌던 고려군을 구한 것이다. 그 후 중원부(충주)에 있던 왕건에게 전황을 보고하자 신승겸, 김락 두 장군을 잃고 실의에 빠져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온양군 건치연혁조.

42)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1년 4월조.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온양군 성곽조.

44)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1년 7·8월조.

있던 왕건은 용기를 얻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유금필은 태조 왕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다.

태조 12년(929)에서 태조 13년에 걸친 고창군(안동) 전투에서도 그는 진가를 발휘하였다. 기록을 보자.

G. 12년에 견훤이 古昌郡을 포위하였으므로 유금필이 태조를 따라 가서 구원하는데 예안진에 이르러 태조가 여러 장군들과 의논하기를 “싸움이 만일 불리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大相 公萱과 홍유가 대답하기를 “만약 불리하게 되면 竹嶺 길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니 빠져 나갈 길을 사전에 수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금필이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무기는 흉악한 도구요 전투는 위험한 일이라 죽자는 결심을 가지고 살려는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연후에 비로소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싸우기도 전에 먼저 패배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요? 만약 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古昌의 3천여 명을 고스란히 적에게 주는 것이니 어찌 절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그의 의견을 따랐다. 그래서 유금필이 猪首峯으로부터 내려 닥치며 분투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태조가 고창군에 들어가서 유금필에게 말하기를 “오늘의 승전은 그대의 힘이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이에 앞서 충주로 간 견훤은 충북 양산을 장악하고 烏於谷에 군사를 주둔시켜 죽령길을 봉쇄하였다.<sup>45)</sup> 그러자 견훤은 精兵을 발하여 오어곡성을 쳐 고려군 1천여 명을 죽였다. 이때 이곳을 지키고 있던 고려 장군 楊志·明植 등 6명이 후백제에 투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왕건은 이에 여섯 장군의 처자들을 참수하여 조리돌리게 하였다.<sup>46)</sup> 오어곡성의 상실이 태조에

45)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1년 8월조.

46)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1년 11월조.



게 어떤 타격을 주었는지 짐작이 간다.

그 해 말과 이듬해인 태조 12년 초 왕건은 북쪽 변경과 서경을 순시하였다. 아마 군사를 모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는 군사를 거느리고 태조 12년 7월 基州(경북 풍기)로 갔다. 이곳은 이전에 基木鎭이라고도 불리었던 지역으로<sup>47)</sup> 군사적 요지였다.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켰던 것 같다.

그러자 견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주의 남방에 있는 의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 장군 홍술이 전사하자 왕건은 울며 말하기를 “이제 내가 좌우의 손을 잃었구나”하며 비통해 했다 한다. 견훤은 나아가 안동의 서쪽에 있는 順州(경북 안동군 풍산읍)까지 쳐올라와 점령하였다.<sup>48)</sup>

이에 왕건은 죽령을 넘어 剛州(경북 영주)로 내려와 주둔하였다. 견훤은 여세를 몰아 더 북쪽으로 나아가 자신의 고향인 加恩縣(경북 문경군 가은면)을 공격했으나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남진하던 견훤은 태조 12년 12월 古昌郡(안동)을 포위하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사료 G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안동의 동북쪽에 있는 예안에 이르러 안동에 들어가기 전에 작전회의를 한 것이었다.<sup>49)</sup> 퇴로를 먼저 확보해 놓자는 공훤과 홍유의 건의에 반대하면서 우선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선봉에 서서 공격을 개시하여 안동에 들어갈 수 있는 진격로를 마련하였다. 또 互角之勢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sup>50)</sup>

이어 안동의 북쪽 10리 지점에 있는 瓶山에서 벌어진 견훤과의 전투에서 왕건은 대승하였다. 그것은 물론 그곳의 토착세력인 金宣平·權幸·張吉 등의 도움이 컸다. 그 공으로 김선평은 大匡에 봉해졌고 권행과 장길에게는

47) 『고려사』 권57, 지리지2 경상도 안동부 기주현조.

48)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2년.

49) 이곳 예안에는 大王薨라는 숲이 있었다. 왕건이 남진하다가 이 숲속에서 3일 동안 머물다 떠났다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예안현 고적조).

50) 유영철,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연구』, 경인문화사, 2005, 160쪽.

大相이란 벼슬이 주어졌다.<sup>51)</sup> 이 고창군 전투의 대승 배경에는 유금필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건의 신임이 깊어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태조 14년(931) 귀양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H. (태조) 14년에 참소를 당하여 鵠島로 귀양갔다. 이듬해에 견훤의 해군 장군 尙袞 등이 大牛島를 공격 약탈하므로 태조가 大匡 萬歲 등을 파견하여 구원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으므로 태조가 근심하고 있었다. 유금필이 글을 올려 고하기를 “저는 비록 죄를 짓고 귀양살이는 하고 있지만 백제가 우리의 해변 지방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미 곡도와 包乙島의 장정들을 선발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또 전함도 수리하여 방어하게끔 되었으니 주상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 태조가 편지를 보고 울면서 말하기를 “참소하는 말만 믿고 어진 사람을 내쫓은 것은 나의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내 그를 소환하고 위로하는 말이 “그대는 실로 죄 없이 귀양을 살게 되었건만 일찍이 원한하거나 울분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도울 일만 생각하였으니 내가 심히 부끄럽고 후회된다. 나의 소망은 장차 자손들에게까지 연장하여 상 주어 그대의 충절에 보답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그러나 H사료만으로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참소를 당했다고만 되어 있다. 참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으로는 고창군 전투의 승리 이후 왕건은 태조 13년 8월 천안에 도독부를 설치하고<sup>52)</sup> 청주에 나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해

51) 『고려사』 권1, 태조세가 13년 정월조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안동도호부 건치현 혁, 인물조.

52) 김갑동, 「나말러초 천안부의 성립과 그 동향」, 『한국사연구』 117, 2002 참조.

12월에는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설치했다. 이듬해 2월에는 신라의 서울 경주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유금필이 참소를 입어 곡도로 귀양간 것은 바로 그 직후인 3월이었다.<sup>53)</sup> 따라서 유금필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

그런데 그 해 安北府와 剛德鎭을 설치하고 有司들에게 반포한 조서가 주목된다.

- I. 북쪽오랑캐(北蕃)들은 人面獸心이라 굶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염치를 잊어버리나니 지금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으나 복종과 배반이 無常하다. 그들이 지나는 州鎭들에는 성 밖에 館을 지어 그들을 접대하도록 하라(『고려사』 권2, 태조세가 14년조).

앞서 우리는 유금필의 군대가 주로 말갈(여진)족으로 구성된 부대였을 것이라 논한 바 있다. 여기서 '복번'이라 함은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아마 유금필의 군대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약탈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염치를 잊어버리고 인면수심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 밖에 들이지 말도록 조치한 것이 아닐까. 나아가 유금필까지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기에 벌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귀양간 곡도는 현재의 백령도로 원래 고구려의 곡도였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 여기에 군대가 주둔하면서 白翎鎭이라 불리운 곳이다.<sup>54)</sup> 여기서 귀양살이를 하던 그는 후백제의 수군이 대우도를 침탈하자 곡도와 포을도의 장정들을 모아 이들을 격퇴했다. 후백제의 해군장군 尙哀 등이 大牛島(평북 용천)를 침략하자 왕건이 대광 萬歲 등을 보내 구원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는 기록은 다른 데에서도 보인다.<sup>55)</sup> 귀양살이를 하는 중에도

53)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4년 3월조.

54) 『고려사』 권58, 지리지3 서해도 안서도호부 永康縣조.

55) 『고려사』 권2, 태조세가 15년 10월조.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우국충정으로 오히려 후백제군을 격퇴한 그의 충성심은 태조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하여 왕건은 유금필은 물론 그 자손들에게까지 상을 줄 것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유금필은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소환되었다. 태조 16년(933) 정남대장군에 임명되어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기록을 보자.

- J. 또 이듬해에 征南大將軍으로 임명되어 의성부를 지켰는데 태조가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나는 신라가 백제의 침공을 받을까 염려하여 일찍이 대광 能丈, 英周, 烈弓, 公希들을 파견하여 진수하게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백제 군대가 벌써 海山성, 阿弗鎭 등지에 이르러 사람과 재물을 겁탈한다 하니 신라 서울에까지 침범할까 우려된다. 그대는 마땅히 가서 구원하라”고 하였다. 유금필이 장사 80명을 선발 인솔하고 갔다. 槎灘에 이르렀을 때 병사들에게 이르기를 “만약 여기서 적을 만나면 나는 필연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인데 다만 그대들이 같이 희생당할 것이 염려되니 그대들은 각자가 살 도리를 잘 강구하라”고 하였다. 병사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모두 죽으면 죽었지 어찌 장군만을 홀로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적을 공격할 것을 서로 맹세하였다. 사탄을 건넌 다음 백제의 統軍 神劍 등과 맞닥뜨렸다. 유금필 등은 싸우려 하였으나 백제 군대는 유금필 군의 대오가 정예로운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흩어져 도망쳤다.

유금필이 신라에 도착하니 늙은이와 어린이들까지 모두 성밖에 나와서 영접하며 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뜻밖에 오늘 大匡을 뵈옵게 됩니다. 대광이 아니시면 우리들은 백제군에게 살육당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금필이 7일간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검 등을 子道에서 만나 싸웠는데 크게 승리하였으며 적장 今達, 奐弓 등 7명을 생포하였으며 적을 살상 포로한 것이 심히 많았다. 승전 보고를 받아 본 태조는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장군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유금필이 돌아오니 태조는 궁전에서 내려가서 맞이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그

대 같은 공훈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니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 두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유금필이 사례하며 말하기를 "국난을 당하여 자기 일신을 생각지 않으며 위급에 직면하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하 된 자의 직분이거늘 성상께서 왜 이 지경까지 하십니까?"라고 하니 태조는 더욱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금필은 정남대장군에 임명되어 의성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가 고려로 기울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신검 일파는 신라와 고려의 교통로를 차단하려 한 것 같다. 신검은 아버지 견훤이 고창군 전투의 패배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이를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 고려와의 일전을 노렸던 것 같다.<sup>56)</sup> 그리하여 이미 파견되어 있던 能丈, 英周, 烈弓, 公希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자 유금필은 장사 80여 명을 이끌고 이들을 구하러 갔다. 사탄을 건너 후백제 신검군과 대면한 그는 전투없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렇게 교통로를 확보하여 신라와 다시 소통할 수 있었다.

신라의 서울 경주에 입성한 그는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돌아오는 길에 신검군을 다시 만난 그는 크게 승리하였다. 승전 보고를 받은 왕건은 궁전 뜰 아래까지 내려가 맞이하고 그 충성과 용맹을 마음속에 새겨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왕건과 유금필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의 활약은 태조 17년(934) 벌어진 운주 전투에서도 빛났다.

K-1. 청태 원년(934) 정월에 견훤이 태조가 運州에 주둔하였음을 듣고 甲士 5천 명을 뽑아 달려왔다. 그들이 미처 진을 치기 전에 장군 유금필이 勁騎 數千으로 돌격하여 3천여 급을 베었다. 이에 웅진 이복 30

여 성이 스스로 항복했으며 견훤 휘하의 術士 宗訓과 醫員 訓謙, 날랜 장수 尙達·崔弼 등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삼국사기』 권50, 견훤전).

2. (태조) 17년에 태조가 장차 運州를 친히 정벌하려고 유금필을 우장군으로 임명하였다. 견훤이 소문을 듣고 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와서 말하기를 "양군이 서로 싸우면 양편이 다 온전하지 못할 형세이니 무지한 병졸들만 많이 살상될 것이 우려된다. 화친을 맹약하고 각자의 영토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소"라고 하였으므로 태조가 여러 장군들을 모아 의논하였다. 유금필이 말하기를 "오늘의 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염려마시고 저희들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나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드디어 견훤이 아직 대오를 포치하지 못한 그 틈을 타서 勁騎 數千을 거느리고 돌격하여 적병 3천여 명의 머리를 베고 術士 宗訓, 醫師 訓謙, 勇將 尙達, 崔弼을 생포하니 熊津 이복 30여 城이 소문을 듣고 자진하여 항복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이 전투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 태조 왕건이 운주(홍성)를 정벌하여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 한 반면 후백제 견훤은 고창군(안동) 전투의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견훤 측에서는 특별히 甲士 5천을 선발하여 왔다. 여기서 '甲士'란 '갑옷 입은 병사'라는 뜻이거나 '옳게가는 병사'란 뜻일 것이다. 견훤이 상당히 신경을 쓴 전투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견훤은 될 수 있으면 화친을 하려 하였으나 유금필은 싸우지 않으면 안될 형세라 주장하면서 전투를 독려했다. 결전을 감행하여 후백제에 마지막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왕건은 완전히 승리를 굳혔고 반면 견훤은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견훤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神劍·良劍 등의 일파와 金剛 일파의 대립이 격화된 요인이 되었다. 즉 견훤이 직접 출동했다가 대패함으로써 그에게 비판적이었던 신검 일파가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

56) 당시 후백제 내부에서는 금강계와 신검계가 있었는데 신검계는 대고려전에 있어 強硬·主戰의 입장을 취하였고 금강계는 소극적·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1993, 160쪽).

던 것이다. 견훤이 총애했던 금강이 견훤과 행동을 같이 했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로 이 전투의 패배는 견훤과 금강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었다.<sup>57)</sup> 이 전투 이후 能奭이 康州都督으로 있던 양검과 武州都督이었던 용검에게 사람을 보내 신검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여 이듬해 3월 견훤은 금산사에 유배되고 금강은 살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 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후백제 수중에 있던 웅진 이북의 30여 성<sup>58)</sup>이 고려의 수중에 넘어 들어오게 되었다. 고려의 영토가 훨씬 확대되어 이후 후백제와의 마지막 결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유금필의 활약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거느린 부대를 기록에서는 「勁騎 數千」이라 표현하고 있다. 군세고 날랜 기병이란 뜻이다. 이 기병은 일찍이 유금필이 말갈(여진)족을 복속시키면서 얻은 병사들이 아닐까 한다. 여진족은 원래 유목 민족으로 말 타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의 활약은 태조 18년(935)에도 이어졌다. 기록을 보자.

L. (태조) 18년에 태조가 여러 장군들에게 이르기를 “羅州 지방 40여 군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오랜 기간 교화에 복종하였다. 일찍이 大相 堅書, 權直, 仁壹 등을 파견하여 안무하였는데 근자에는 백제에게 약탈당하여 6년간 바닷길이 통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위하여 안무하러 가겠는가?”라고 하였다. 洪儒, 朴述熙 등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용맹하지는 못하나 장수의 한 사람으로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대체로 장수가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귀중하다”라고 하였다. 公萱, 大匡 梯弓 등이 아뢰기를 “유금필이 적임자입니다”라

57) 김갑동, 「고려초기 흥성 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사학연구』 74, 2004, 148쪽. 한편 이 전투는 충남 지역을 둘러싼 고려와 후백제의 각축전에서 고려의 패권을 확실히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되기도 했다(윤용혁,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17쪽).

58) 『삼국사기』에는 ‘運州界 三十餘郡縣’으로 되어 있다(『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순왕 8년 9월조).

고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나 역시 벌써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근자에 신라의 길이 막혔을 때 유금필이 가서 그것을 열었는데 내가 그 수고를 생각하면 감히 다시 명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때 유금필이 아뢰기를 “저의 나이는 이미 늙었으나 이것은 국가 대사인인데 감히 있는 힘을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태조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이 명령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유금필을 都統大將軍으로 임명하고 예성강까지 가서 송별하였으며 御船을 주어서 보냈다. 왕은 3일간 그대로 체류하면서 유금필이 바다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환궁하였다. 유금필이 나주에 가서 정벌하고 돌아올 때에도 태조는 또 예성강까지 나가 맞이하고 위로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나주는 일찍이 903년 궁예 치하에서 왕건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금성군에서 나주로 개명된 지역이다.<sup>59)</sup> 그 후 이곳은 왕건의 거점 지역으로 위급할 때는 왕건이 내려와 피신하기도 했으며<sup>60)</sup> 이곳 출신의 후비를 맞아오기도 한 지역이다.<sup>61)</sup> 그런데 이 지역이 태조 12년을 전후한 어느 시기에 후백제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걱정하던 태조는 홍유나 박술희 등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유금필을 파견하고 있다. 공훤과 제공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왕건도 그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신라와의 길을 연 수고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자 유금필은 老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중책을 맡았던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인의 기개를 보여주었다. 그는 도통대장군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출동 시 왕건은 예성강 입구에까지 몸소 나

59) 『고려사』 권1, 태조세가 總序 및 김갑동, 2001, 「고려시대 나주의 지방세력과 그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1, 9-10쪽.

60) 913년 아지태 사건으로 왕건이 궁지에 몰리자 그는 변방으로 물러날 것을 자원하고 나주로 내려온 적이 있다(『고려사』 권1, 태조세가 乾化 3년조).

61) 『고려사』 권88, 후비전 태조 莊和王后 吳氏조.

아가 배웅을 하였다. 나주를 점령하고 돌아오자 또 예성강에 나아가 맞이 하였다. 왕건과 유금필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듬해인 태조 19년(936) 후백제 신검과의 마지막 전투에도 유금필은 참전하고 있다.

M. 가을 9월에 왕이 三軍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가서 병력을 합세하여 一善郡으로 나아가니 神劔이 무력으로써 이에 대항하였다. 갑오일에 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양군이 진을 쳤다. 왕은 견훤과 함께 군사를 사열하였다. 왕이 견훤을 비롯하여 대상 堅權, 述希, 皇甫金山, 원운 康柔英 등은 기병 1만을 거느리게 하고 支天軍大將軍 원운 能達, 奇言, 韓順明, 昕岳, 정조 英直, 廣世 등은 보병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좌강을 삼았으며 대상 金鐵, 洪儒, 朴守卿, 원보 連珠, 원운 萱良 등은 기병 1만을 거느리게 하고 補天軍大將軍 원운 三順, 俊良, 정조 英儒, 吉康忠, 昕繼 등은 보병 1만을 거느리게 하여 우강을 삼았으며 溟州 대광 王順式, 대상 兢俊, 王廉, 王父, 원보 仁一 등은 기병 2만을 거느리게 하고 대상 庾黔弼, 원운 官茂, 官憲 등은 黑水, 達姑, 鐵勒 등 외족들의 정에 기병 9천 5백을 거느리게 하고 祐天軍大將軍 원운 貞順, 정조 哀珍 등은 보병 1천을 거느리게 하고 天武軍大將軍 원운 宗熙, 정조 見萱 등은 보병 1천을 거느리게 하고 杆天軍大將軍 金克宗, 원보 助杆 등은 보병 1천을 거느리게 하여 중군을 삼았으며 大將軍 대상 公萱, 원운 能弼, 장군 王含允 등은 기병 3백과 여러 성들에서 온 군사 1만 4천을 거느리게 하여 삼군의 원병을 삼았다(『고려사』 권2, 태조세가 19년 9월조).

당시 후백제의 견훤은 부자간의 불화로 고려에 귀순한 후였다. 남은 것은 신검 형제들이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일선군(경북 선산)으로 나아가 신검군과 대결하였다. 당시의 고려군 편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태조 왕건은 군대를 좌강, 우강, 중군으로 편성하고 이 3군의 원병인 후방 부대로 편성하였다. 태조 왕건 자신은 중군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유금필도 중군에 속하여 왕건을 호위한 것 같다. 그런데

<표 1> 일이천 전투시 고려군 편성표

편 제	성 명	군사수
左 綱	甄萱, 堅權, 述希, 皇甫金山, 康柔英	馬軍 1만
	支天軍 大將軍 能達, 奇言, 韓順明, 昕岳, 英直, 廣世	步軍 1만
右 綱	金鐵, 洪儒, 朴守卿, 連珠, 萱良	馬軍 1만
	補天軍 大將軍 三順, 俊良, 英儒, 吉康忠, 昕繼	步軍 1만
中 軍	王順式, 兢俊, 王廉, 王父, 仁一	馬軍 2만
	庾黔弼, 官茂, 官憲	勁騎 9천5백
	祐天軍 大將軍 貞順, 哀珍	步軍 1천
	天武軍 大將軍 宗熙, 見萱	步軍 1천
3軍 援兵	杆天軍 大將軍 金克宗, 助杆	步軍 1천
	大將軍 公萱, 能弼, 將軍 王含允	騎兵 3백
		諸城軍 1만 4천7백

여기서 일반 보병부대는 步軍, 기병부대는 馬軍·騎兵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유금필 휘하 부대는 黑水靺鞨과 達姑·鐵勒 등 諸蕃으로 구성되어 특별히 '勁騎'라 표현되어 있다. 앞의 사료 K와 같은 표현인 것이다. 이 군세고 날랜 기병이야말로 왕건이 거느린 정예 부대였던 것이다. 그들이 바로 I사료의 北蕃이요 D사료의 北狄인 것이다. 유금필이 말갈(여진)족을 비롯한 북방민족을 복속시켜 그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기병화하였던 것이다. 그 기동력 있는 기병으로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유금필의 해안과 태조의 뛰어나고 유연한 북방정책으로 북방세력이 오히려 후삼국 통일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유금필에 대한 대우

### (1) 딸의 후비 책봉

이처럼 유금필은 태조 왕건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았다. 유금필은 목숨을 바쳐 왕건에게 의리와 충성을 다하였다. 이에 따라 태조 왕건도 유금필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렇게 활약하던 유금필은 태조 24년(941) 여생을 마쳤다. 그 때문일까. 태조 왕건도 2년 후인 태조 26년(943) 세상을 떠났다.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사』 찬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N. 유금필은 장수다운 지략이 있어 병사들에게서 신망을 얻었다. 출정할 때마다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출발하였으며 집에 들러서 자고 간 적이 없었다. 개선할 때면 태조는 반드시 마중 나가 위로하여 주었으며 시종 일관 다른 장군들이 받지 못하는 총애와 대우를 받았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유금필은 장수다운 지략이 있어 부하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얻었다 하였다. 명령하면 망설이지 않고 떠나는 무장다운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개선할 때마다 몸소 마중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우가 특별하였다 하고 있다.

왕건의 유금필에 대한 총애는 그 딸에 대한 후비 책봉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 기록을 보자.

O. 東陽院夫人 庾氏는 平州 사람이니 太師 三重大匡 黔彌의 딸이요 孝穆太子 義와 孝隱太子를 낳았다(『고려사』 권88, 후비전1 태조 동양원부인 유씨조).

즉 동양원부인 유씨가 바로 태조의 부인이 된 것이다. 거기서 아들 둘을 얻었으니 효목태자 의와 효은태자가 그들이다.

그렇다면 동양원부인은 언제 태조의 부인이 된 것일까. 효목태자와 효은태자 2명의 아들을 낳고 유금필의 활약상으로 미루어볼 때 후삼국 통일 이전임은 분명하다. 아마도 태조 8년경이 아닌가 한다. 이 해에 그는 연산진과 임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는데 그 후 “국가가 안정될 때를 기다려 응당 그대의 공을 표창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직후 후비 책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sup>62)</sup>

그런데 같은 고향 출신인 평산 박씨 세력에서도 태조의 후비를 3명이나 배출하고 있다. 박지윤과 그의 두 아들 박수문·박수경의 딸도 태조와 혼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패강진 지역의 활약과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또 같은 고향 출신일 뿐 아니라 같은 태조의 장인들로서 양자는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했을 것임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는 개국 1등 공신인 홍유·배현경·신송겸·복지겸들의 딸과는 혼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첫째는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원래 이름은 洪術·白玉衫·能山·砂瑰 등으로<sup>63)</sup> 漢式 姓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의 신분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현경은 行伍에서 입신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들에게 포상은 하였지만 그들의 딸과 정략결혼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왕건이 즉위할 때에는 중앙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력을 포섭하려는 태조의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의 딸을 후비로 책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62) 정용숙은 구체적인 논증 없이 태조 1~5년 사이에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위의 조항).

63) 『고려사』 권92, 홍유전.

## (2) 배향공신 책봉

죽은 후 그는 '忠節'이란 시호를 받았다. 그가 평생토록 유지해왔던 '충성과 절개'가 잘 담겨 있는 시호이다. 그리고 그는 태조의 廟廷에 배향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P-1. 시호를 忠節이라 하였으며 성종 13년에 대사 벼슬을 추증하고 태조 廟廷에 配享하였다(『고려사』 권92, 유금필전).

2. 甲辰에 大廟에 제사하고 戴宗을 제5室에 모셨다. 功臣 裴玄慶, 洪儒, 卜智謙, 申崇謙, 庾黔弼을 太祖에 配享시키고 朴述熙, 金堅述을 惠宗에 配享시키고 王式廉을 定宗에 配享시키고 劉新城, 徐弼을 光宗에 配享시키고 崔知夢을 景宗에 配享시키고 대사면령을 내리고 문무관리에게는 爵을 1급씩 내리고 執事者에게는 2級을 내리고 백성에게는 3 일간 크게 풀어 먹였다(『고려사』 권3, 성종세가 13년 4월).

3. 壬午에 大廟에 참배하고 先王先后에게 尊號를 더하여 높히고 裴玄慶, 洪儒, 卜智謙, 申崇謙, 庾黔弼, 崔凝을 太祖廟에 配享하고 朴述希, 金堅術을 惠宗廟에 配享하고 王式廉을 定宗廟에 配享하고 劉新成, 徐弼을 光宗廟에 配享하고 崔知夢, 朴良柔를 景宗廟에 配享하고 崔承老, 崔良, 李知白, 徐熙, 李夢游를 成宗廟에 配享하고 韓彥恭, 金承祚, 崔肅을 穆宗廟에 配享하고 流罪 이하를 사면하였다(『고려사』 권5, 현종세가 18년 4월조).

### 4. 太祖室

太師 開國 武烈公 裴玄慶

太師 開國 忠烈公 洪儒

太師 開國 武恭公 卜智謙

太師 開國 壯節公 申崇謙

太師 開國 忠節公 庾黔弼

太傅 熙愷公 崔凝(『고려사』 권60, 예지2 길례대사 太廟禘祫功臣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성종대에 이르러 유금필은 태조의 배향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배향공신이란 각 왕들을 제사하는 廟室에 같이 배향한 공신을 말한다. 이들은 왕의 생존 당시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신하들이었다.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홍유 등은 태조 왕건을 추대하여 왕위에 즉위시킨 인물들이다. 즉 개국 1등 공신이었다.<sup>64)</sup> 이 외에 성종 13년에는 유금필이 배향공신으로 추가되었다. 태조에게 있어 유금필은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현종대에 와서 최응이 추가되어 태조의 배향공신은 6명이 되었다.

최응은 문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5경에 능통하고 글을 잘 지었다. 원래 궁예를 섬겼던 인물로 태조 왕건이 모반의 혐의를 뒤집어쓸 때 위기에서 구해준 인물이다. 태조 즉위 후에는 태조를 도와 知元鳳省事·廣評郎中 등의 관직을 지냈다. 신라가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여 삼국을 통일했듯이 왕건도 개경에 7층탑, 서경에 9층탑을 건립하여 후삼국을 통일하려 하자 손수 發願文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태조 15년(932)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sup>65)</sup> 유금필이 무력으로 태조에게 충성을 다했다면 최응은 문장과 지략으로 왕건을 보필했던 것이다.

이들 6공신은 이후에 소위 '祖代 6功臣'이라 불리웠는데 그들 자손들에게는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다음 자료는 그것을 말해준다.

Q-1. 文宗 6년 10월에 制하여 裴玄慶 등 6功臣이 우리 태조를 도와서 처음으로 대업을 열어 공덕이 鍾鼎에 새겨져 있으니 그 후사로 曾孫 玄孫에 이르기까지의 남녀 僮尼로 벼슬이 없는 자에게는 初職을 除授하고 벼슬이 있는 자에게는 官級을 더하게 하였다.

2. 숙종이 즉위하여 詔하여 太祖代 및 三韓功臣의 内外孫으로 관직이 없는 자는 1戶에 1인에게 入仕함을 허락하게 하고 顯宗 때의 功臣 河拱

64) 『고려사』 권1, 태조세가 원년 8월조.

65) 『고려사』 권92, 崔凝傳.

辰과 장군 宋國華 및 庚戌년에 契丹에 갔다가 억류당한 使, 副使는 그 子孫 1인에게 入仕를 허락하게 하였다.

3. 예종 3년 2월에 詔하여 祖代 6功臣과 三韓前後功臣과 대대로 配享하는 功臣과 西京·興化·龜州·宣州·慈州·仇比江·潘嶺 등을 固守한 官員과 장수의 子孫은 각각 1인에게 初入仕를 허락하게 하였다. 4월에 詔하여 配享功臣의 内外孫으로 벼슬이 없는 자에게는 初職을 허락하게 하였다. 6년에 太祖功臣의 子孫을 封爵하였다.
4. 神宗이 즉위하여 詔하기를, “祖代 6功臣과 三韓功臣의 자손은 모두 入仕를 허락하라”고 하였다.
5. 高宗 40년 6월에 詔하여 祖代 6功臣과 三韓功臣의 內玄孫의 玄孫의 孫자와 玄孫의 玄孫의 아들이나 딸 일곱명을 가지고 蒙恩을 받지 못한 戶(未蒙戶)의 1명에게 初入仕를 허락하게 하고 三韓後壁上功臣의 內玄孫의 玄孫의 玄孫의 아들과 玄孫의 玄孫의 玄孫의 딸 여섯을 가지고 蒙恩을 받지 못한 戶의 1명에게 初入仕를 허락하고 대대로 配享功臣의 內玄孫의 玄孫과 玄孫의 曾孫이 딸 다섯을 가지고 몽은을 받지 못한 戶는 1명에게 初入仕케 하였다.
6. 忠烈王 8년 5월에 聖祖代 6功臣과 三韓壁上功臣과 역대의 壁上功臣과 配享功臣과 戰歿功臣에게도 또한 孫子の 戶에 각각 1명에게 入仕함을 허락하였다(이상 『고려사』 권75, 選舉志3 銓注 凡敘功臣子孫조).

이처럼 역대의 공신 자손 중 벼슬이 없는 자는 관직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 특히 태조대의 6공신을 뜻하는 ‘祖代 6功臣’은 蔭敍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우대되었다. 고려 국가를 창업하고 후삼국을 통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기 이성계가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을 때도 이 ‘조대 6공신’의 예에 의하여 李成桂·沈德符·鄭夢周·楔長壽 등을 중흥공신에 봉하고 錄券을 하사한 바도 있다.<sup>66)</sup>

66) 『고려사』 권45, 공양왕세가 원년 12월조.

유금필의 아들인 兢과 官儒·慶 등도 음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현종 18년(1027) 門下侍郎平章事·判兵部事를 지낸 유금필의 손자 庾方과<sup>67)</sup> 문종 9년(1055) 檢校將作少監을 지낸 庾恭義도<sup>68)</sup> 음서를 받아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합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5. 맺음 말

지금까지 고려 후삼국 통일기에 활약했던 유금필 장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금필의 원래 고향은 茂松縣(전북 고창)이었는데 신라 말기 溟江鎭이 설치되면서 여기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이 지역은 군사적인 거점 지역이었으므로 유금필은 군인이 되어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후삼국이 성립되면서 904년 궁예에게 투항하여 궁예 밑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점차 지위를 확보해갔다. 그러한 배경에는 같은 평산 출신인 평산 박씨 세력의 협조와 후원이 있었다. 궁예에게 이 지역을 들어 항복한 것은 박지윤이었기 때문이다.

유금필은 왕건이 궁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위 직후 유금필은 鎭州(충북 진천)에 주둔하면서 청주 지역의 반란을 억제하였다. 태조 3년에는 鵬岩城에 출진하여 北狄을 토벌하고 돌아왔다. 태조 8년에는 征西大將軍으로써 燕山鎭과 任存城을 격파하였고 曹物城 전투에서 견훤과의 화친을 이끌어 내었다. 태조 11년에는 湯井郡(충남 아산)에서 성을 쌓다가 위기에 빠졌던 청주를 구했으며 이듬해에는 南

67) 『고려사』 권5, 현종세가 18년 정월조.

68) 『고려사』 권7, 문종세가 9년 8월조.



征에 참여하여 古昌郡(안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격로를 확보함으로써 고창군 전투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태조 14년 모함을 받아 鵠島에 유배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은 변함없이 그 지역에 침략한 후백제 해군을 격퇴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16년 후백제군의 공격으로 막혀 있던 신라의 수도 경주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였다. 이듬해의 運州(홍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후삼국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태조 18년에는 왕건의 제2거점 지역이었던 羅州를 수복하였다. 태조 19년 후백제 신검과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중군의 장군으로 참여하여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유금필의 활약에 대해 태조 왕건은 출전할 때마다 몸소 배웅하였으며 그에 따른 포상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을 하였다. 그리하여 유금필의 딸 동양원부인은 왕건의 부인 29명 중 서열 9위에 올랐다. 또 성종대에는 태조의 廟廷에 배향되어 공신이 되었다. 개국 시 도와준 개국공신 4명, 문신 최응과 같이 배향 공신이 되었다. 이들이 소위 '祖代 6功臣'으로 그들의 후예는 음서의 혜택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결국 유금필이 없었다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함없는 충성심과 뛰어난 활약으로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즉 그의 생애와 업적은 현 군인들의 표상이 되기도 충분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9. 5, 심사수정일 : 2008. 10. 6,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庾黔弼, 王建, 弓裔, 太祖, 高麗, 溟江鎮, 古昌郡, 運州, 배향공신

<ABSTRACT>

## The Role of General *Yu Geum-pil*(庾黔弼) in the Unification of Later Three Kingdoms by the *Goryeo* Dynasty

Kim, Gap-dong

The hometown of *Yu Geum-pil*(庾黔弼) was *Musong*(茂松) area, but his ancestor moved to *Paegangjin*(溟江鎮) in the Late *Silla* Dynasty. In that place he became a soldier. Not long after he did duty service in *Gung-ye*(弓裔)'s Army. He was promoted in rapid in virtue of the clan of *Park*(朴) in *Pyeongsan*(平山) area helped him.

After *Wang Geon*(王建) became the King *Taejo*(太祖) of *Goryeo*(高麗) Dynasty, *Yu Geum-pil* had a lively time of it. The year 918 he was stationed in *Jinju*(鎭州) area, and defeated a rebellion in *Cheongju*(淸州) area. The year 920 he subdued enemy in north border. The year 927 he secured *Yeonsanjin*(燕山鎮), and *Imjonseong*(任存城) area. The year 929 he got a great victory against the *Gyeon-hweon*(甄萱)'s Forces, and secured the routes of attack into the *Andong*(安東) area.

But the year 931 he was exiled to a remote island, because of false incrimination. not long after his guiltlessness became clear, he came back to an official position. The year 934 he led a force of horsemen into the *Hongseong*(洪城) Battle, he did a great victory. The year 936 as a commander, General *Yu* he participated in the battle against the Later *Baekje* Kingdom. He played an active part in that battle.

King *Taejo* awarded a prize to him for his role. King *Taejo* married with *You Geum-pil*'s daughter. He became King *Taejo*'s father-in-law. After all

he became a vassal of merit. Therefore his descendant had the opportunity to take an official without examination.

Key Words : *Yu Geum-pil* (庾黔弼), *Wang Geon* (王建), *Gung Ye* (弓裔), the King *Taejo* (太祖), *Goryeo* (高麗) Dynasty, *Paegangjin* (溟江鎭), *Gochanggun* (古昌郡), *Wunju* (運州), *Baehyanggongsin* (配享功臣)